

EYA NEWSLETTER

ENGLISH TITLES

FICTION

제목 : SWEET LAMB OF HEAVEN

가제 : 하늘이 준 우리 아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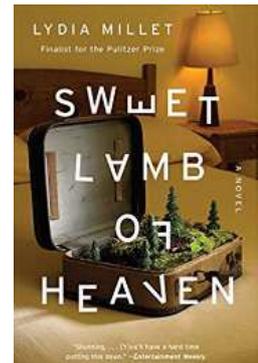
저자 : Lydia Millet

출판사: W. W. Norton & Company

발행일: 2017년 5월 2일 (초판은 2016년 5월 2일)

분량 : 256 페이지

장르 : 소설/ 심리 스릴러



- * 미국 내셔널 북어워드 소설 부문 후보 선정, 2016년 「워싱턴 포스트」, 「뉴욕타임스」, 「커커스 리뷰」 선정 최우수 도서
- * “쫓고 쫓기는 흥미진진한 이야기, 뛰어난 심리 서스펜스 소설. 재능 넘치는 작가가 쓴 흡입력 있는 소설로 대중을 만족시킬 만한 이야기다.”- 「퍼블리셔스 위클리」
- * “예술적인 당당함과 섬세한 감정, 심오한 의도가 결합되어 한 가족의 폭력적인 갈등을 삶 자체의 광범위한 전쟁으로 변환시킨 소설”- 「북리스트」, 돈나 시먼

효용 가치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철저히 구분하는 사람. 그래서 득 될 것이 없는 사람은 없는 존재로 취급하는 사람. 애나가 결혼한 남자 네드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 결혼을 한 후에야 그가 아버지가 물려준 큰 재산 때문에 자신을 택했다는 사실을 알았고, 아기가 생긴 후에야 그가 제대로 된 가정을 꾸릴 생각이 없다는 것을 안 애나는 아이만은 무조건 낳겠다는 주장을 펼치면서 네드와 점점 멀어졌다. 산부인과 진료는 물론 출산도 혼자서 다 해냈다. 아기 방을 꾸미고, 아기용품들 미리 준비하는 일도 모두 애나의 몫이었고 네드는 일말의 관심도 보이지 않았다. 다른 신생아들과 달리 두 눈을 말갈게 뜨고 방실방실 웃으며 태어난 사랑스러운 딸 레나를 키우는 동안에도 네드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다. 밤낮 없이 아기가 울고 수시로 젖을 먹이느라 애나가 정신 없이 사는 동안 그는 처음엔 작은 방으로 옮겨서 혼자 잠을 자더니 급기야 아예 집에 들어오지 않는 날도 부지기수였다. 하지만 애나는 슬프거나 우울하지 않았다. 어차피 네드가 그런 사람인 걸 인지하고 포기해서인지 그다지 신경 쓰이지도 않았다. 그러나 애나를 견딜 수 없게 만드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사실 그 문제는 레나가 태어난 날부터 시작됐다. 갓 태어난 아기를 품에 안았을 때, 머릿속

에서 이상한 말소리가 들리기 시작한 것이다. 돌봐줄 가족 한 사람 없는 애나에게 친절한 간호사들이 수시로 들러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들이 병실을 나가고 주변이 조용해지면 그 말소리가 착각이 아니었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영어도 아니라서 알아들을 수도 없는 환청은 하루도 끊이지 않았고 새벽이든 한낮이든 레나가 울면 더 크게 애나의 귀를 때리곤 했다. 의사 검진을 받고, 비싼 뇌 사진도 찍었지만 아무 이상이 없었다. 정신질환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우울증 검사며 조현병 검사까지 받았지만 정신적인 이상 지표 중 어느 것도 충족하는 것이 없다는 결과만 돌아왔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레나가 크고 마침내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 애나의 머릿속을 가득 메웠던 말소리도 똑 끊겼다. 과연 그 소리는 무엇이었을까?

소원해질 대로 소원해진 남편과 불편하게 함께 살고 싶지 않았던 애나는 어린 딸을 데리고 고향인 알래스카를 떠나기로 결심했다. 네드는 재산을 반으로 나누자는 것만 아니면 별 반대할 생각이 없어 보였다. 그렇게 마침내 자유를 얻은 애나는 순전히 아이를 위한 의무감에 간간히 그에게 이메일을 보내 레나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알려주곤 했다. 물론 무성의한 답장만 간간히 올 뿐이었다. 하지만 결혼할 때까지만 해도 정치는 멍청한 놈들이나 하는 거라고 단언하던 네드는 알래스카에서 오랫동안 사업가로 성공한 이력을 발판 삼아 상원의원 선거에 출마하기로 결심했다. 그가 내건 슬로건은 “위대한 미국 가정.” 모든 선거 출마자가 그렇듯 화목하고 다정한 식구들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 되자, 네드는 애나와 레나를 찾기 시작했다. 사태를 파악한 애나는 이메일도 보내지 않고 신용카드도 사용하지 않고 가명을 사용했다. 어떤 시스템에도 자신의 흔적이 남지 않도록 조심, 또 조심하며 메인 주의 어느 해변가에 우뚝 선 허름한 모텔에서 지내는 동안, 애나는 네드의 포위망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생각했던 이곳도 결코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직감한다. 평범한 주민처럼 보이지만 어딘가 수상한 숙박객들, 컵가를 또 다시 맴도는 소리들. 급기야 레나가 납치되는 일까지 벌어지고, 성공을 위해서라면 무엇도 겁내지 않는 네드와 레나만은 목숨 걸고 지키려는 애나의 숨막히는 추격전이 시작된다.

강인한 여자 주인공과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스토리, 사이사이에 등장하는 종말에 관한 으스스한 이야기가 두려움을 더하는 스릴러 소설이다.

<저자 소개>

리디아 밀렛(Lydia Millet)은 『Mermaids in Paradise』와 「뉴욕타임스」 선정 ‘주목할 만한 책’ 『Ghost Lights』, 전미 비평가협회상 결승 후보이자 ‘LA 타임스 도서상’ 수상작인 『Magnificence』 등을 쓴 소설가다. 선집 Love in Infant Monkeys은 풀리처 상 결승까지 오르기도 했다.

제목 : IT HAPPENS IN THE HAMPTONS

가제 : 햄프턴에서 일어난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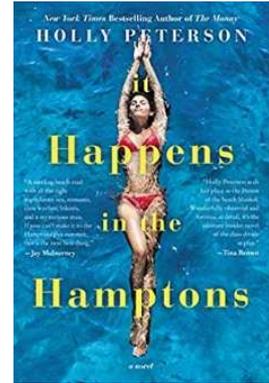
저자 : Holly Peterson

출판사: William Morrow Paperbacks

발행일: 2017년 5월 9일

분량 : 384 페이지

장르 : 소설/ 여성소설



- * “해변에서 읽기에 딱 좋은, 거부하기 힘든 이야기. 1% 중의 1% 상류층을 우스꽝스러운 묘사를 가미하여 세밀하게 그린 소설이다.” – 피플(**People**)
- * “섹스, 로맨스, 계급 전쟁, 비키니, 수상한 사람까지 휴가철에 읽기 좋은 소설의 모든 소재가 들어 있다.” – 「**Bright Lights**」, 「**Big City**」의 작가 제이 맥이너니

미국 동부 해안을, 부자들이나 여름을 즐기러 떠나는 곳으로 알고 있었던 케이티는 올 여름을 그곳에서 함께 보내자는 조지의 제안이 농담인 줄 알았다. 케이티는 만난 지 한 달밖에 안 된 사람의 말을 듣고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곳에, 그것도 아직 어린 아들을 데리고 냉큼 갈 만큼 충동적인 사람도 아니었다. 이미 5월이 시작되고, 분기별로 학생들을 가르치는 케이티의 수업도 모두 마무리된 시점이라 안 될 이유는 없었지만, 여러모로 가능한 일도 아니었다. 그러나 조지는 햄프턴에 거의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집안 대대로 물려 내려온 집이 있으니 그곳에서 마음 편히 지내라고 케이티를 설득했다. 서핑 해변으로 유명하니 한 번 배워보고, 방학을 맞은 그곳 아이들을 대상으로 소일거리 삼아 과외를 해도 되고, 글도 쓰면서 여름을 보내자는 것이다. 부유층만 가는 곳 같다는 케이티의 염려에도 조지는 여러 세대째 그곳에서 나고 자란 지극히 평범한 동네 사람들이 많으니 안심해도 된다고 이야기했다. 서서히 마음이 흔들린 케이티는, 아이가 혼자 앓기도 전에 애 아빠가 훌쩍 떠나버린 이후 늘 혼자서 해왔던 대로, 크게 무리하지 않는 한 자유롭게 살아가자는 결심대로 한 번 햄프턴에 가보기로 결심한다. 새로운 경험, 낯선 곳의 짜릿한 설렘, 무엇보다 한창 피어나는 조지와와의 관계가 더 확실해질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었다.

오리건 주에서 비행기로, 차로 수십 시간을 이동해서 마침내 도착한 햄프턴은 굳이 조지가 아니더라도 한 계절을 보내기에 정말 좋은 곳이었다. 맨해튼에서 투자자로 일하는 조지는 처음 약속처럼, 혹은 케이티의 기대만큼 자주 찾아와 함께 시간을 보내지 못했지만 아름다운 해변과 멋진 풍경은 금세 케이티와 아이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런데 무엇보다 케이티의 관심을 잡아 끈 것은 어딘가 독특한 이 지역의 사람들이었다. 극명히 두 부류로 갈린 사람들, 한쪽은 도대체 재산이 얼마나 되면 저렇게 살 수 있는지 감도 잡히지 않을 정도로 부유한 사람들이고 다른 한쪽은 평범한 사람들이었다. 부잣집 아이들은 여름 내내 하루 종일 해변 활동부터 예술활동, 공부 등 다양한 수업을 받으러 다니고 수십 년째 마을에서 나고 자란 주민들이 이들이 필요로 하는 수업을 제공했다. 아이들이 바쁘게 놀고 공부하는 동안 부잣집 어른들은 친구들과 우아하게 식사를

하고, 아이들이 참여하는 스포츠 활동을 관람하고, 저녁이면 휘황찬란한 저택에서 고급스러운 옷을 휘감은 채 파티를 했다. 케이티로선 이렇게 극명히 다른 계급이 한 지역에 공존한다는 사실만으로 참 흥미로웠는데, 시간이 가면서 실망스러운 사실을 알게 된다. 평범한 축에 속한 줄 알았던 조지가 알고 보니 최상류층의 일원으로 드러난 것이다.

값비싼 물가며 생활비를 감당하기 위해 과외 교사로 나선 케이티는 상류층 부모들이 건네는 과외비 규모를 보고 더욱 놀란다. 그리고 조지와 의 관계가 생각만큼 진전이 되지 못하는 사이, 수상스포츠를 시작한 케이티의 아들은 해양생물학자 겸 어린이들에게 그 수업을 진행하던 교사 루크를 마음에 쏙 들어 하고 케이티는 자연스럽게 루크와 자주 만나기 시작한다. 조지를 통해 상류층 모임에도 참여하고, 자신처럼 부잣집 아이들을 가르치고 이들의 생활 전반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을 사람들과도 가까이 지내면서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는 중간 입장이 된 케이티는 이 두 계층이 눈에 보이는 것만큼 평온하지 않다는 사실을 서서히 인지한다. 수면 아래 가라앉아 있던 두 계층의 갈등은 여름이 깊어가면서 마침내 폭발하고, 무참한 배신과 폭력, 실종자까지 발생하면서 아름다운 해변은 탐욕과 욕망, 갈등이 번진 싸늘한 전쟁터로 바뀐다.

고고한 삶을 이어가는 상류층만큼이나 바다 아래 숨죽인 상어처럼 본성과 정체를 숨긴 평범한 사람들의 갈등을 목격한 케이티는 그 혼란한 상황 속에서 자신이 진정 원하는 것, 꿈꾸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간다. 햄프턴의 멋진 풍경과 흥미진진한 갈등이 잘 어울려진 소설이다.

<저자 소개>

홀리 피터슨(Holly Peterson)은 소설 『The Idea of Him』,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The Manny』 등을 쓴 소설가이자 편집자, TV 프로듀서이다. ABC 뉴스 프로듀서로 일하면서 에미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제목 : KEPT ANIMALS
가제 : 붙잡힌 동물들
저자 : Kate Milliken
출판사: Scribner
발행일: -
분량 : -
장르 : 소설/현대소설



- * “섬세하고 감각적인 문장으로 상실과 정체성, 그리고 공동체를 하나로 엮기도 하고 갈라놓기도 하는 요소에 대해 이야기하는 소설”- 「California」, 「Woman」의 작가 에단 레푸키(Edan Lepucki)
- * “케이트 밀리켄의 작품은 우리 가슴 속 가장 어두운 곳을 곧장 뚫고 들어가서 우리 스스로도 감히 꺼내지 못하는 생각들을 큰 소리로 이야기한다.”- 「The invisible bridge」의 작가 줄리 오린저

찰리라는 이름이 붙여진 젊은 여성은 자신의 이름이 어디에서 온 것인지 나중에야 제대로 알게 됐다. 목에 큰 화상 자국이 있는 엄마, 로리가 수십 년 전에 현재 살고 있는 와이오밍과는 멀리 떨어진 곳, 캘리포니아 주 토팡가 캐년에서 겪은 일들은 오랜 세월을 지나서야 찰리가 이해할 수 있을 만큼 끔찍하고, 놀라웠다. 찰리는 어릴 때부터 엄마가 문득 아침에 일어나면 멀리 떠나버릴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느끼고 새벽에 엄마가 잠이 깨면 자신도 신기하게 잠이 깬 시간들을 떠올리며, 1993년으로 독자들을 데리고 간다. 로리가 열다섯 살이던 시절, 풍족하지 않아도 양아버지, 엄마와 그럭저럭 평범하게 살던 소녀의 삶이 되돌릴 수 없는 혼돈으로 빠져든 그 시간이 그녀의 딸 찰리를 통해 서서히 펼쳐진다.

7월 말의 새벽, 양아버지 거스와 함께 차를 타고 가던 로리는 아직 해가 뜨지 않은 도로 한 켠에서 희멀건 형체를 발견했다. 야생동물들이 워낙 많은 지역이고 뽕뽕 달리는 차에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동물들이 거의 매일 보이다시피 할 정도로 로드킬 사고가 빈번한 곳이라 둘 다 그리 놀라지는 않았다. 관광객들이 놀라거나 또 다른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거스는 길 위에서 죽은 동물들을 발견할 때마다 수습해서 잘 묻어주곤 했다. 로리는 보통 차에 그대로 앉아서 신에게, 엄마가 독실하게 믿는 신이 아니라도 전 인류를 돌보는 신을 떠올리며 좋은 세상으로 가기를 기도했다. 그런데 이날은 뭔가 이상했다. 차에서 내리기 전, 웬지 여우 같은데 살면서 여우가 치인 건 한 번밖에 못 봤다고 이야기했던 거스는 그 형체가 있는 쪽으로 다가갈수록 급격히 일그러졌다. 두 사람이 발견한 것은 야생동물이 아니라, 어린 아이였다.

부유한 피스크 집안이 소유한 농장에서 자질구레한 일을 돌보고 관리하는 거스, 마을 술집에서 바텐더로 일하는 엄마와 셋이서 함께 로리가 사는 집은 새하얗고 거대한 맨션과 멀찍이 거리를 두고 마주보고 있었다. 맨션에는 유명한 영화배우 에버릿 프라이스와 그의 아내 새라, 두 살배기 아들 찰리, 찰리의 누나 비비안이 살았다. 어딘가 불안정한 새라와 아직 십대지만 모델처럼 우아하고 아름다운 몸매를 가진 비비안은 늘 로리의 눈길을 잡아 끌었지만, 또 다른 유형의 부잣집인 피스크

집안의 침대 쌍둥이 준, 웨이드처럼 프라이스 네 사람들과도 그리 가까이 지낼 일은 없었다. 이들과 자신들의 삶은 엇갈릴 일도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로리의 예상은 그 날의 비극적인 사고로 인해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간다. 거스와 로리가 발견한 어린 아이의 시체가 바로 비비안의 어린 남동생, 찰리였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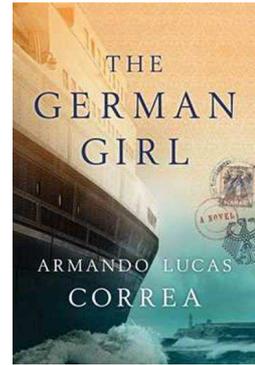
죽은 찰리를 발견한 두 사람은 불과 몇 시간 전, 새라가 찰리를 데리고 장을 보러 갔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때부터 예상치 못한 사실들이 속속들이 밝혀진다. 비비안은 물론 로리가 멀찍이 거리를 유지하고 싶었던 농장 주인의 아이들, 준까지 이 사건에 연계되고 한데 모인 침대 아이들의 갈등과 반항심은 그 해 11월, 토팡가 캐년 전체를 집어 삼킨 산불로 이어진다. 1993년 가을에 캘리포니아 남부에서 실제로 발생한 산불에서 작가가 영감을 얻어 완성한 이 이야기는 겉으로 보기에 파릇파릇한 잎처럼 보이지만 속은 극도로 건조하여 불길만 닿으면 순식간에 타 들어가 곳곳으로 번지는 이 지역의 독특한 자연 환경이 이야기에서 중요한 몫을 담당한다. 긴 시간이 흐른 뒤 로리의 딸 찰리가 당시의 일을 들려주는 이야기 속 이야기의 형식을 취해 더 큰 흥미를 유발하고, 몇 개월에 걸쳐 로리가 겪은 사건들이 나중에 종군기자로 활약하기까지 이후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그 사연이 한 겹씩 벗겨진다. 뜻밖의 사건으로 엮여 거대한 산불로 번지는 이야기 속에는 인간의 본성, 이민자들을 둘러싼 사회적 분위기, 성 문화에 대한 시각, 인종, 가족마다 존재하는 보이지 않는 의무감의 무게가 세심하게 담겨 있다. 산불은 이 모든 요소에서 비롯된 고통을 파괴하는 극단적인 수단이자, 로리가 자신이 키우던 말에게 사막 식물의 이름을 붙이고 자신이 낳은 딸에게 찰리라는 이름을 붙이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된다.

다양한 문화적, 사회적 측면까지 배어 있는 섬세하고 흡입력 있는 소설이다.

<저자 소개>

케이트 밀리켄(Kate Milliken)은 베닝턴 컬리지 문예창작 세미나를 졸업했다. 「Zyzyva」, 「Fiction」, 「New Orleans Review」, 「Santa Monica Review」 등에 글을 기고해 왔으며 푸시카트 상(Pushcart Prize) 후보로 여러 차례 선정됐다. 단편 모음집 『If I'd Known You Were Coming』 (University of Iowa Press, 2013)으로 아이오와 단편소설상을 수상했다.

제목 : THE GERMAN GIRL
가제 : 독일에서 온 소녀
저자 : Armando Lucas Correa
출판사: Atria Books
발행일: 2016년 10월 18일
분량 : 368 페이지
장르 : 소설/ 현대소설



- * “영혼, 테러, 열정, 노력, 희망이 없어도 꺼낸 용기를 멋지게 그린 이야기. 세상이라는 파도 속에서 괴로워하며 방황하는 새로운 세대에게 영원한 부당함이 만든 비극을 보여주는 훌륭한 소설” - 『선들러 리스트』의 작가 토머스 케닐리
- * 강렬하고 깊은 슬픔을 자아내는 소설. 홀로코스트의 서글픈 역사를 조명한다.”- 「커커스 리뷰」
- * “2차 세계대전을 다룬 역사 소설 중에서 빛을 발하는, 잊지 못할 소설” - 베스트셀러 『The Shoemaker's Wife』의 작가 애드리아나 트리지아니

열한 살 한나 로센탈의 삶은 하루하루가 행복하고 흥미로운 일들로 가득했다. 가족이 베를린으로 이사온 뒤 가장 높은 계급 사람들로만 꾸려진 상류층의 일원이 되면서 한나는 오후마다 엄마와 멋들어진 호텔 티 룸에서 고급스러운 옷을 차려 입은 사람들과 더불어 느긋하게 차를 마시며 한가로운 시간을 보냈다. 가장 친한 친구인 레오와 공원을 산책하기도 했다. 걱정할 것 하나 없었던 이 행복한 시간은 베를린 거리 곳곳에 빨간색, 흰색, 시커먼 색이 가득한 나치 깃발이 내걸리면서 와르르 무너졌다. 한나와 가족들이 풍족하게 누리던 모든 것들, 평온했던 모든 시간이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한때는 집처럼 포근하고 안락했던 곳들은 한나와 주변 사람들을 ‘불결한’ 존재로 취급했다. 가까이 지내던 친구들도 다 한나를 멀리하고, 마음 편히 있을 곳을 한 곳도 찾을 수 없었다. 유대인이라는 이유 때문이었다.

늘 누리던 것을 못 누리는 것으로 불행은 끝나지 않았다. 이대로 머무르다가 목숨이 위태로워질 수 있음을 깨달은 한나의 아버지는 같은 상황에 놓인 레오의 아버지 등 비슷한 처지의 유대인들과 힘을 모아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시작한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독일을 떠나는 것, 그것도 나치가 장악한 유럽 대륙과 멀리 떨어진 곳으로 가는 것이라는 의견이 모아지고, 쿠바가 유대인들을 받아주기로 했다는 반가운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들의 목적지는 대서양 너머 쿠바로 정해진다. 무수히 많은 서류들, 까다로운 비자 신청 절차를 모두 끝낸 900명 넘는 유대인들은 마침내 다시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곳, 새로운 희망을 꿈꿀 수 있는 쿠바로 데려다 줄 호화 여객선 ‘세인트 루이스호’에 몸을 싣는다. 정든 집과 떠나야 하는 건 분명 아쉽고 힘든 일이었지만, 한나는 가족만큼 소중한 레오가 함께 떠난다는 사실에 안심하며 두근대는 마음으로 배에 올랐다.

힘든 시간을 보낸 이민자들은 기나긴 항해를 이어가는 동안 새로 시작될 삶을 긍정적으로 내다보며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 저녁에는 가면무도회며 파티가 이어지고, 식사 때마다 최고급 재료로

만들어진 멋진 음식들이 차려지는 등 한동안 누리지 못한 호화로움과 풍족함 속에서 모두의 기대는 한껏 부풀어 올랐다. 막 사춘기에 접어든 한나와 레오는 어쩌면 인생에 가장 고된 시간이 될지 모를 이 순간들을 함께 하면서 자연스럽게 서로와 평생을 하고픈 애뜻한 감정이 피어나기 시작한다. 그러나 낯선 땅에서 새로 시작하려던 이 수많은 사람들의 꿈은 쿠바에 당도한 직후 또 다시 산산조각나고 만다. 쿠바 정부가 이전에 했던 약속을 깨고 세인트루이스 호에 탄 유대인들을 수용하지 않겠다고 나선 것이다. 캐나다도, 미국도 일제히 거부 의사를 밝힌 가운데, 꿈과 기대가 가득하던 세인트루이스 호는 다시 출발지로 되돌아가는 것 외에 달리 방도가 없다는 절망의 먹구름이 내려 앉는다. 정말 이대로 2차 대전이 시작되기 직전인 그곳, 죽음만이 기다리고 있을 독일로 돌아가야만 할까?

이야기는 수십 년의 세월을 건너, 뉴욕에서 열한 번째 생일을 맞은 애나 로센이 알 수 없는 곳에서 온 우편물을 뜯어보는 장면으로 넘어간다. 보낸 사람은 한나. 애나가 이름만 들었던 대고모의 이름이었다. 9/11 테러로 비극적인 죽임을 맞이한 아빠를 키워주셨다는 분, 그래서 어쩌면 애나가 잘 모르는 아빠의 이야기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대고모가 뜻밖에 연락을 해온 것이다. 애나와 엄마는 한나 고모가 살고 있는 쿠바 하바나로 떠나고, 여든일곱이 된 한나와 마침내 마주한다. 한나는 자신을 만나러 먼 길을 달려온 소중한 혈육들에게 그 오랜 세월 홀로 간직했던 이야기, 세인트루이스 호가 쿠바에 도착한 이후에 벌어진, 운명의 장난과도 같은 서글픈 일들을 꺼내 놓는다. 기나긴 협상 끝에 900명이 넘는 승객 중 극소수만 쿠바 땅에 발을 디딜 수 있었던 사실, 그 행운을 거머쥔 사람 중에 한나와 엄마는 포함됐지만 아버지와 사랑하는 레오는 제외된 것, 그리고 생각처럼 적응하기가 쉽지 않았던 쿠바에서의 삶에 관한 한나의 이야기에는 어쩔 수 없이 살기 위해 고향을 버린 이민자들의 고통스러운 사연이 그대로 담겨 있다. 서로 다른 곳에서 제각기 다른 이유로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한나와 애나는 그렇게 서로의 아픔을 어루만지며 떨어져 있었지만 결코 변치 않은 가족의 끈끈한 유대감으로 텅 비어 있던 가슴 한쪽을 채워간다.

작가가 스페인에서 ‘세인트루이스 호’를 타고 쿠바 하바나로 건너온 자신의 증조모의 실제 이야기를 토대로 쓴 소설로, 1939년 당시 나치 체제 하에서 쫓겨간 무수한 유대인이 새로 정착한 곳에서도 독일어 억양이 남아있다는 이유로 어이 없게도 ‘나치’라 불리며 뜻밖의 차별을 견뎌야 했던 힘겨웠던 시간들이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다.

<저자 소개>

아만도 루카스 코레아(Armando Lucas Correa)는 수상 경력이 있는 저널리스트이자 저술가, 미국 최대 판매량을 자랑하는 히스패닉 매거진 「People en Español」의 편집장이다. 기자 활동을 하면서 전미 히스패닉 출판협회, 전문기자협회로부터 수 차례 상을 받았다.

NON- FICTION

제목 : SLOW MEDICINE

가제 : 느린 의학

저자 : Victoria Sweet

출판사: Riverhead Books

발행일: 2017년 10월 17일

분량 : 304 페이지

장르 : 회고록 / 의학

VICTORIA
SWEET
SLOW
MEDICINE

- * 의학이 기술보다 인간을 중시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큰 화제를 모은 에세이 『신의 호텔(*God's Hotel*)』의 저자가 제시하는 의사와 환자의 새로운 미래
- * 최첨단 기술과 장비가 인간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린 ‘영혼 없는 의학’의 현실을 날카롭게 꼬집고 진정한 치유의 길을 안내하는 책

서류상으로는 흠 잡을 데 하나 없이 완벽한 의료기록들, 빠뜨린 치료도 없고, 진단이 잘못된 부분도 없이 정해진 순서와 방법대로 착착 치료가 진행된 후에도, 환자의 상태가 점점 악화된다면 운이 없는 탓으로 여겨야 할까? 나이 많은 분들이 하는 말처럼 ‘갈 때가 된 것’으로 그냥 받아들여야 할까? 25년 넘게 의사로 살아온 저자는 즐거운 추수감사절 휴일 중 어느 날 아버지가 발작으로 쓰러지고 저승 문턱까지 가는 일을 겪고서야 완벽해 보이는 의료체계에 아주 중요한 무언가가 빠졌다는 사실을 절감했다. 800쪽이 넘는 아버지의 병원 치료와 약물 처방 기록에 나와 있지 않은 것, 그것은 ‘영혼’이었다. 환자에 대한 진심 어린 관심과 그것을 바탕으로 한 판단, 친절함, 환자를 반드시 책임지고 고치겠다는 다짐. 먼 옛날 언젠가는 아픈 사람을 치료할 때 당연히 가장 중시되었던 이러한 가치가 현대 사회에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희소한 요소가 되고 말았다.

사람을 치료하는 대신 ‘건강관리’가 목표가 된 의학이 낳은 결과는? 미국의 경우 총 GDP의 17.5 퍼센트를 건강과 질병에 쏟아 붓고도 병도 환자도 줄기는커녕 전에 없던 병이 자꾸 생기고 더 많은 사람들이 질병의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저자는 이런 모순된 상황을 해결할 방법을 ‘슬로푸드’에서 찾았다. 패스트푸드에 대적하는 의미로 등장한 슬로푸드의 핵심은 음식을 몸이 움직일 에너지를 공급하는 수단으로 여기는 대신 몸에 꼭 필요한 영양을 공급하는 근본으로 여긴다는 데 있다. 마찬가지로, 저자는 의학 역시 맨 처음 사람의 병을 치료하기 시작한 출발점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이 책에서 설명한다. 매뉴얼대로 순서도라도 입력된 것처럼 기계적으로 해치우는 치료 대신 환자에 대한 관심과 인체의 기능을 책이 아닌 현장에서 의사가 체험하고 습득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해할 줄 아는 태도가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영국의 의사들이 1인당 할당되는 환자 수가 과도한 현실에 반기를 들고 파업을 선언하고, 캐나다 보건부 장관이 공적인 자리에서 직접 '느린 의학'에 대해 언급한 것은 자동화, 기계화된 차가운 의료 현실의 심각한 병폐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의식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저자는 환자 얼굴보다 진료 기록이 적힌 컴퓨터 화면을 더 오래 들여다보고, 어떤 조직보다 관료주의가 심하고 대체의학이라면 손사래부터 치면서 무시하는 현대 의학의 불균형적인 시각과 문제점을 날카롭게 꼬집고 전통적인 의료의 목적과 방식, 융과 가톨릭 성인 중 한 사람인 힐데가르트의 생명에 대한 접근 방식에서 앞으로 의사와 환자가 함께 나아가야 할 새로운 방향을 찾아 이 책에서 제시한다. 저자가 현장에서 직접 경험한 사례들, 다양한 의사들이 시도한 올바른 치료 사례들을 통해 '기적 같은 치료법'과 치료의 효율성을 찾고 따지기 전에 사람을 먼저 제대로 보자는 당연한 이야기를 설득력 있게 전하는 의미 있는 에세이다.

<목차>

머리말

1. 물병자리의 정점
2. 닥터 구루샨티, 그리고 새로 장만한 흰 가운
3. 머리에 구멍이 난 사람
4. 닥터 그레그의 30 퍼센트 솔루션
5.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의 수호신에게 제대로 항의하는 법
6. 히포크라테스의 책임
7. 선지자 세 명, 그러나 전문가는 없다
8. 닭장에서 열린 초청의 날
9. 마침내 인정받기 전, 느린 의학 클리닉의 모습
10. 되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나아가다

(이하 생략, 총 16장으로 구성)

<저자 소개>

빅토리아 스위트(Victoria Sweet)는 샌프란시스코에 위치한 라구나 혼다 병원에서 25년 넘게 의사로 근무해 왔다. 캘리포니아 의과대학 임상부교수이자 역사학 박사로, 저서로는 국내에도 번역된 『신의 호텔(God's Hotel)』 등이 있다.

제목 : BREAKING THROUGH GRIDLOCK

가제 : 꼭 막힌 대화 시원하게 뚫는 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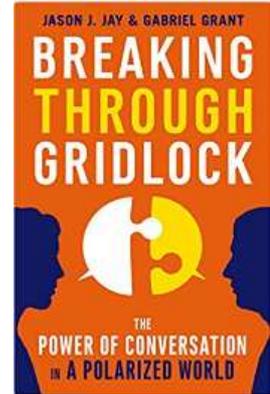
저자 : Jason Jay, Gabriel Grant

출판사: Berrett- Koehler Publishers

발행일: 2017년 5월 22일

분량 : 240 페이지

장르 : 자기계발(대화법)



- * “서로 다른 점들 사이에 다리를 놓고 말에서 행동으로 옮겨갈 수 있는 변화의 동력을 제시한 현장 실무서” –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Originals and Give and Take*」의 저자 애덤 그랜트
- * “두 저자는 민주주의에 꼭 필요한 요소, 대화를 시작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소개한다” – CNN 진행자 겸 저술가, 시민운동가 밴 존스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 잔뜩 열 받아본 경험이 한 번도 없는 사람은 없으리라. 정답이 없지만 반드시 어느 한쪽으로 방향을 정해야만 하는 사안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는 가치관이나 생각이 전혀 달라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상황을 수시로 경험한다. 이런 경우, 더 ‘성질 급한’ 쪽이 버럭 화를 내면서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거나 상대가 그런 반응을 보일까 두려워 애초에 다른 쪽이 입을 다물어버리는 것으로 대화는 흐지부지 마무리된다. 문제는 이렇게 대화가 꼭 막혀버리면 중요한 문제에 최선의 해결책을 찾기가 힘들어진다는 것이다. 어떻게 해야 이런 난감하고 답답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소신을 갖고 밀고 나가고픈 자신의 생각을 설득하면서도 서로 간의 관계를 해치지 않고, 혼자 해결하는 것보다 더 나은 방법을 찾는 비결은 없을까? 사람마다 가치를 두는 방식과 대상, 주제는 다양하고 이러한 다양성이 건강하게 논의될 때 비로소 혁신이 가능하다는 사실은 모두가 잘 알고 있다. 두 저자는 긍정적인 혁신을 위해 시작한 대화가 교착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방지하고 원만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는 여섯 가지 단계를 이 책에서 소개한다. 억지스럽게 합의를 이끌어내거나 ‘대충 넘어가는’ 방식으로 갈등을 무조건 회피하는 것보다 더 나은 길, 모두가 만족할 수는 없지만 충분히 납득하고 인정하며 함께 나란히 새로운 방향으로 걸어갈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된다.

동료, 가족, 친구들과 서로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이 오면 감정적으로 격해지는 경우가 많고, 신경이 날카로워지는 바람에 서로 멀게 보면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린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대화가 잘 안 풀리는 사람보다는 자신과 의견이 일치하는 사람, 잘 동조해주는 사람들과 더 가까이 지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서서히 배척한다. 누군가의 사적인 이익을 위해 서가 아닌 더 나은 환경과 사회를 만들기 위해 열정적으로 일하는 사회운동가들도 이러한 교착 지점에 자주 빠진다. 모두가 좋은 의도로 더 나은 삶을 위해 싸우는데, 자신의 생각보다 더 나은 방향을 받아들이는 대신 이런 불필요하고 아무 득도 되지 않는 갈등으로 정작 중요한 일을 제쳐두는 일도 벌어진다. 두 저자는 어떤 상황에서 무엇을 위해 대화를 나누건 서로의 생각이 충돌하

는 상황이 발생하면 피하거나 공격적으로 맞서는 대신 갈등 자체를 그대로 수용할 줄 아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갈등이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혹은 억지로라도 내 주장을 관철하는 것으로 끝내는 대신 서로의 생각이 다르고 그로 인해 다소 불편한 긴장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 들여야 이 갈등을 풀 수 있는 참신하고 효과적인 방법도 찾을 수 있다. 이 책은 총 여섯 단계에 걸쳐 자신이 주장하는 생각을 되돌아보고, 대화를 제기하고 합의점을 함께 찾을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을 알려준다. 워크숍과 강좌를 통해 효과가 이미 충분히 입증된 연습 문제와 흥미로운 사례가 함께 제시되어 읽는 재미를 더한다.

<목차>

서문: 이 책이 나오기까지

- 우리가 지나온 여정
- 용어 설명

머리말: 이 책을 활용하는 법

- 진지하지만 재미있게
- 연습문제 설명
- 요약

1. 짝 막히는 지점: 대화 실패
2. 진정성: 막힌 곳을 빠져 나오는 열쇠
3. 내가 가진 것 제대로 알기: 가려진 대화
4. 미끼 놓기: 쳐주고 얻을 수 있는 것
5. 과감하게 알려라: 요지 건드리기
6. 대화의 시작: 대화에 다시 숨을 불어 넣으려면
7. 긴장도 받아들여라: 서로의 차이가 변화를 만든다
8. 더 넓게: 포함 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

<저자 소개>

제이슨 J. 제이(Jason J. Jay)는 하버드 대학교에서 심리학 학사과정, 교육학 석사 과정을 마치고 MIT에서 조직학을 공부했다. 현재 MIT 경영대학원 강사이자 동 대학에서 추진하는 ‘지속가능성 사업’의 대표를 맡고 있다.

가브리엘 그랜트(Gabriel Grant)는 예일 대학교에서 삼림환경학 박사 과정을 밟고 있다. 15년 넘게 지속가능성 분야에서 컨설턴트로 활동해 왔으며 바이런 장학재단(Byron Fellowship Educational Foundation)의 공동 창립자이자 ‘휴먼 파트너(Human Partners)’의 CEO를 맡고 있다.

제목 : THE PROMISE OF BEAUTY AND WHY IT MATTERS

가제 : 미(美)의 미래, 왜 아름다움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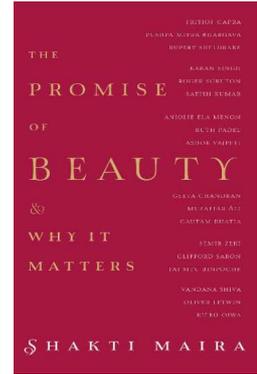
저자 : Shakti Maira

출판사: HarperCollins India

발행일: 2017년 1월 5일

분량 : 374 페이지

장르 : 사회과학



*** 현대 사회에서 미(美)의 의미를 되짚어보고 올바른 의미와 가치를 설명한 책**

‘아름답다’는 말은 현대 사회에서 너무나 광범위하게 사용된다. 예쁘고 매력적인 것은 물론 즐거운 것, 대단한 것, 놀랍고 뛰어난 것이면 뭐든 아름답다는 말이 따라 붙을 정도다. 음식이 맛있다는 표현 대신 ‘아름다운 식사였어’라고 하기도 하고, 전반적으로 일이 순탄하게 흘러가거나 행복한 날은 ‘아름다운 날이었다’라고 자평하기도 한다. 심지어 스포츠 경기에서 선수가 멋지게 승점을 거둔 경우에도 ‘아름답다’고 표현한다. 이렇듯 의미가 확대되면서 미(美)가 지닌 본래의 의미는 흐려지고, 피상적인 대상에 더 많이 적용되는 경우가 늘어난 것이 문제라고 저자는 지적한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아름다움은 보는 사람이 정하는 가치인지, 혹은 아름다움에는 누구도 반문할 수 없는 고정된 요소가 존재하는지에 관한 혼란을 가중시킨다. 이에 따라 무엇이 진정한 아름다움인가에 관한 사람들의 관심도 커지고 있다. 걸치장에 힘쓰는 대신 삶 자체에 아름다움을 불어 넣으려는 움직임도 대대적으로 나타난다. 저자는 이처럼 명확한 정의가 없어 방대하면서도 핵심 가치에 대한 갈등이 여전히 존재하는 이 ‘아름다움’에 대해 이 책에서 심도 있게 고찰한다. 아름다움은 겉으로 보이는 모습에 국한되는 개념일까? 단순히 예쁜 것을 전적으로 주관적인 잣대로 가려내는 기준일까? 아름다움에 특별한 기능이 있을까? 역사적으로 아름다움은 자부심을 고취시키는 요소였음에도 불구하고 왜 현대 예술계나 진보적인 사회, 정치 사상가들은 굳이 아름다움을 피하려고 할까? 저자는 아름다움을 이해하는 기준과 방식에 큰 혼란이 빚어지면서 이와 같은 의문이 생겨났다고 보고, 이러한 오해가 불러일으킨 문제를 지적하는 한편 미의 진정한 의미를 세밀하게 설명한다. 환경, 교육, 경제, 정치체제에도 미가 존재하며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측면에서 아름다움이 중심이 된다는 사실을 저자는 총 열여덟 명의 저명한 사상가들이 밝힌 미에 관한 생각을 토대로 우리에게 풀어서 전한다.

과학자들은 미적 가치가 진화와 관련이 있는지 연구해 왔고, 철학자들은 진실과 선함이 아름다움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고찰해 왔다. 그리고 예술가들은 아름다움과 그것이 거부당하는 상황을 고민해 왔고, 생각과 마음의 관계를 연구해온 전문가들은 아름다움과 관련된 경험이 균형, 조화, 리듬, 가치의 비율을 결정하는 신경계의 특정 반응경로에 영향을 주는가를 두고 오랫동안 조사를 진행했다. 그리고 사회운동가들은 아름다움이 사회 시스템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입증해 왔다. 저자는 이처럼 다양한 분야의 시선과 기준이 아름다움을 어떻게 조명하는지 자세히 분석하고,

이를 포괄적으로 수용하여 현대사회에 발생한 각종 문제를 기존과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보고 해결책을 찾는 열쇠로 활용하는 방법을 설명한다. 개인적인 갈등부터 정치적 갈등에 이르기까지, 혹은 좁은 범위에서 전 우주를 아우르는 범위까지 '미'의 가치와 의미를 제대로 적용하면 보다 쉽게 해결할 수 있다.

아름답다는 표현에 담긴 진정한 의미를 다시 한 번 생각하고, 몸과 마음은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 사회를 모두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 우리가 노력해야 하는 부분을 짚어주는 책이다.

<목차>

머리말

1부. 과학자들

- 프리초프 카프라 (Fritjof Capra)
- 푸시파 미트라 바르가바(pushpa mittra bhargava)
- 루퍼트 셸드레이크(Rupert Sheldrake)
- 나의 생각

2부. 철학자들

- 카란 싱(Karan singh)
- 로저 스크루톤(Roger Scruton)
- 사티쉬 쿠마르(Satish Kumar)
- 나의 생각

3부. 실무자들 (A) - 3인

4부. 실무자들 (B) - 3인

5부. 뇌와 마음의 관계를 연구한 과학자들 - 3인

6부. 사회운동가들 - 3인

맺음말: 패턴을 연결해보자

미(美)에 관한 명상

<저자 소개>

샤키 마이라(Shakti Maira)는 평단에서 호평 받는 예술가이자 철학자로, 인도 국립 현대미술관을 비롯해 세계 여러 전시관에서 작품을 전시해 왔다. 선집에 실린 'Transmissions and Transformations', 'The Cult of the Goddess', 'Artistic Visions and the Promise of Beauty' 등의 글과 강연을 통해 미학과 문화에 대해 이야기해 왔다. 저서로는 『Towards Ananda: Rethinking Indian Art and Aesthetics』 (2006)이 있다.

제목: MASTERING THE ADDICTED BRAIN

가제: 중독된 뇌를 다스려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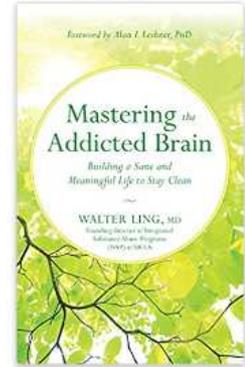
저자: Walter Ling

출판사: New World Library

발행일: 2017년 8월 8일

분량: 225 페이지

장르: 건강/의학



- * “아편 유사물질에 대한 중독이 수천 명의 목숨을 앗아가고 수많은 가족들의 삶을 망가뜨리고 있다. 저자는 이 분야에 오랫동안 활약해온 대표적인 전문가로서 그간 쌓은 지혜를 이 책에 멋지게 정리했다.” – 콜롬비아 대학교 정신의학과 교수, 허버트 클레버
- * “진정한 거장이 완성한 결실이다. 이 작은 책 속에 중독의 과학적 특성과 위대한 인류애, 그리고 유머가 모두 담겨 있다.” – 버몬트 행동건강센터, 의학박사 겸 교수 리처드 A. 로슨

알코올 중독자나 마약, 혹은 각종 약물에 중독된 사람들은 “꿈으려고 진짜 열심히 노력해 봤는데 안 되더라”는 말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고민이 전부 거짓은 아닐 것이고, 실제로 이들이 정말 새 삶을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한 흔적들이 그 주장을 뒷받침하기도 한다. 이를 통해 우리는 중독이 자신은 물론 주변 사람들, 사랑하는 가족들의 인생까지 망가뜨린다는 사실을 당사자가 아무리 인지하고 벗어나려 애쓰더라도 ‘결심’만으로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왜 그럴까? 그럼에도 중독되지 않은 사람들이 비난하듯 ‘의지박약’의 탓으로 돌릴 수 있을까? 정신의학과 의학박사이자 교수인 저자는 중독을 ‘없애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놀라운 전제로 이 책을 시작한다. 한 번 중독이 되면 뇌가 영구적으로 변하기 때문이다. 중독된 상태를 스스로 제어하고, 통제하고, 약이나 술을 처음 접한 것처럼 먹지 않는 방법도 배울 수는 있지만 중독된 뇌 자체가 그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가지는 않는다. 이는 곧 언제든 다시 중독자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각종 중독으로 괴로워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문제 행동을 자꾸 되풀이하는 것이다. 저자는 중독의 본질적인 특성을 알아야 중독을 다스릴 수 있고, 약물이나 술에 휘둘리는 대신 주도권을 다시 스스로가 거머쥘 수 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절망할 필요는 없다. 다시 건강한 행동을 학습하고, 긍정적인 변화가 오래 지속되도록 관리하는 방법은 존재한다. 저자는 단순하면서도 효과적인 단계별 접근 방식을 차근차근 밝히 나가면서 중독자 스스로, 혹은 가까운 사람이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끌어 내는 과정을 이 책에서 상세히 소개한다. 용기를 북돋아주는 여러 가지 팁과 더불어 스트레스, 지루하고 단조로운 기분, 사회적인 압력 등 중독이 재발되도록 자극하는 요소를 피하는 방법이 제시된다. 책 첫 부분에는 뇌의 구조와 화학적인 특성을 토대로 중독이 발생하는 과정을 살펴보고, 뇌가 기억해버린 행동, 뇌 깊숙한 곳에 일단 박혀버린 습관을 없던 일로 만드는 것이 왜 그토록 어려운지 알려준다. 이러한 정보는 변화를 시작하고 그 변화가 오래 지속될 수 있는 발판이 되고, 저자가 강조

하는 대대적인 변화 즉 새로운 일상과 새로운 관심거리, 새 친구, 새로운 모습을 시도하고 수용하는 단계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 저자가 ‘상식적인 신경과학’이라 묘사하는 이 단계별 해결책은 지극히 당연한 사실들을 핵심으로 삼아 의지력에 대한 막무가내 식 비난을 배제하고 전체론적 관점에서 전과 전혀 다른 삶을 조금씩 만들어갈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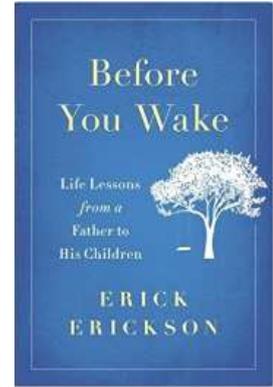
추천사 / 서문 / 머리말

- 1장. 중독은 뇌 질환이다: 뇌가 중독되는 과정, 그 상태가 지속되는 기전
- 2장. 약물에서 벗어나라: 해독, 그리고 재발의 위험성
- 3장. 방콕 사남루앙으로, 새 삶을 준비하자: 재발 예방법
- 4장. 신체의 건강
- 5장. 정서적 건강
- 6장. 환경에 반응하며 사는 것
- 7장. 대인관계
- 8장. 공동체의 일원이 되라
- 9장. 균형 잡힌 삶

<저자 소개>

월터 링(Walter Ling)은 신경정신학 박사로 캘리포니아 대학교 의과대학의 정신의학과 교수이자 ‘통합 약물남용 프로그램’ 창립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 자문가로도 활동한 경력이 있다.

제목 : BEFORE YOU WAKE
가제 : 네가 깨기 전에
저자 : Erick Erickson
출판사: Hachette Books
발행일: 2017년 10월 3일
분량 : 176 페이지
장르 : 에세이



- * 「애틀랜틱(*The Atlantic*)」 선정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보수주의자” 겸 라디오 진행자가 어린 자녀들에게 쓴 의미 있는 편지, 초판 5만 부 출간 예정
- * 저자의 개인 웹사이트 '*The Resurgent*(부활)'에 첫 게시 후 큰 호응을 얻은 글을 토대로 엮은 책

안 좋은 일은 한꺼번에 찾아온다는 말이 뺏속까지 와 달을 때가 있다. 라디오 뉴스 진행자로, 여러 유명 잡지와 신문의 기고가로 활발히 활동해온 저자에게는 안 좋은 일이라고 표현하기에는 너무 무거운 악재가 1년 동안 몰아 닥쳤다. 그저 흔한 알레르기 증상인 줄 알고 한 달을 견디다가 증상이 계속 나빠지자 결국 아내에게 떠밀려 병원을 찾았고 CT 촬영 후 근 한 달을 집에 돌아오지 못했다. 폐에 피가 묻혀진 덩어리가 무수히 발견되어 혈전 용해제를 계속 맞고 정말 저 세상으로 갈지도 모르는 극한 상황까지 오간 것이다. 하필, 저자의 아내도 같은 시기에 희귀한 폐암 진단을 받았다. 그나마 다행스럽게도 수술 없이 약으로 암세포를 억누르는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지만, 부부는 어린 두 아이들을 두고 어쩌면 둘이 한꺼번에 세상에서 사라질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몸을 떨었다. 그러나 시련은 이것이 끝이 아니었다.

2016년 후반, 미국 전역은 대통령 선거로 조용할 날이 없었다. 설마 했던 도널드 트럼프가 공화당 대선 후보로 선정되자, 여러 언론을 통해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보수주의자”로 꼽힌 저자에게 그 파장이 돌아왔다. 저자는 도널드 트럼프를 지지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혔었고, 그 견해를 납득할 수 없었던 트럼프 지지자들이 저자를 맹공격하기 시작한 것이다. 늘 그럴듯 피해는 가족들에게도 미치고, 아이들은 학교에서 또래 친구들을 통해 자신의 아버지가 얼마나 욕을 먹고 있는지 전해 들어야 했다. 저자는 나중에 두 아이들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살았고 어떤 마음과 철학, 가치관으로 아이들을 키웠는지 어쩌면 영원히 알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병을 이겨내지 못해 숨을 거둔다면, 인터넷 검색으로 아이들이 발견할 자신의 아버지는 형용할 수 없을 만큼 이상한 사람, 정신 나간 인물로 종합될 수도 있었다. 이에 저자는 어쩌면 직접 전할 수 없을지 모르는 삶의 의미를, 자신이 굳게 믿으며 살아 왔고 그 믿음을 토대로 키운 아이들이 자신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기를 바라며 희망했던 것들을 편지로 남기로 결심했다.

저자가 개인 웹사이트를 통해 ‘네가 잠에서 깨기 전에 내가 죽어야만 한다면’이라는 제목으로 처음 세상에 공개된 편지 형식의 에세이는 곧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공감을 얻고 널리 알

려졌다. 삶에서 마주칠 수밖에 없는 고난들, 그럼에도 목적 의식을 갖고 즐겁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담담하면서도 진한 애정을 담아 쓴 글은 뉴욕타임스 칼럼리스트와 『The Road to Character』의 저자 데이빗 브룩스 등 유명인들이 자진해서 공유하면서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다. 그가 자녀들에게 남긴 이 진심 어린 메시지는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 찌든 생활 속에 왜 살아야 하는지 의미를 잃어버린 모든 사람들에게 한 줄기 희망을 건넨다. 책은 총 열 편의 편지로 구성되어 있다.

<목차>

머리말

1. 배트맨을 기다리며: 신의 계획이 나를 위한 건 아닐지도 모른다
2. 남쪽에서 보낸 여름: 고통은 곧 삶으로
3. 잭슨부터 두바이까지: 세상을 보면 사람이 바뀐다
4. 알라, 하비비, 슈웨이 슈웨이: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만든다
5. 용서와 후회: 떠나 보내는 것의 중요성
6. 밤에 잘 자는 법: 의식이 중요하다
7. 또 다른 면: 신앙심
8. 우리 모두는 주어진 역할이 있다: 튼튼한 세상 만들기
9. 함께 밥 먹기: 요리는 사람들을 가깝게 만든다
10. 덤

<저자 소개>

에릭 에릭슨(Erick Erickson)은 머서 대학교에서 정치학과 역사를 공부하고 동 대학에서 법학 학위도 취득했다. 애틀랜타 지역 라디오의 '이브닝 뉴스' 진행을 맡고 있다. 2016년 초부터 개인 웹사이트 'The Resurgnt(부활)'를 운영하고 있다. 폭스 뉴스, 「뉴욕타임스」 기고가로도 활동 중이다.

제목 : MORE THAN MONEY

가제 : 돈 이상의 가치

(부제: 재산과 가족을 모두 지키는 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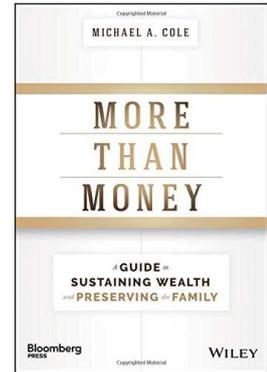
저자 : Michael A. Cole

출판사: Bloomberg Press

발행일: 2017년 4월 17일

분량 : 192 페이지

장르 : 경제(자산관리)



- * “가족들이라면 누구나 경험할 만한 문제를 포괄적으로 정리하고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가르쳐주는 가이드북” – 『*Family Wealth: Keeping It in the Family*』의 저자 제이 휴스
- * “성공한 가족들이 가장 넓은 범위에서 가족 개개인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면서도 확보한 재산을 창의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상세히 알려주는 지침서” – 세이브룩 대학교 교수 데니스 T. 제프

처음부터 상당한 재산을 물려 받지 않은 이상, 스스로 노력해서 작은 돈을 큰 재산으로 불려려면 기술과 운, 타이밍이 모두 따라줘야 한다. 그래서 실제로 그저 생계를 이어갈 만한 수준 혹은 그럭저럭 살아갈 정도를 훌쩍 뛰어넘어 막대한 재산을 모으는 사람은 별로 없다. 남다른 재능, 기술, 운으로 재산을 모은 사람들만큼이나 대대로 전해오는 재산을 잘 지켜낸 사람들도 찾아보기 힘들다. 여러 연구를 통해 큰 재산이 다음 세대에 물려지더라도 세 번째 세대가 되면 처음 전해진 재산의 약 70 퍼센트가 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풍족한 재산을 선사한 사업이 3세대 까지 가업으로 유지되는 경우는 12 퍼센트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가족 사업은 아홉 건 중 한 건만이 그 정도 세월을 견디고 처음의 성공을 이어갈 뿐이다. 아무것도 없는 맨손에서 시작해 큰 재산을 모은 사람들은 분명 탁월한 재능과 기술을 보유했다고 할 수 있지만 장기적인 재산 관리가 이렇듯 처참한 실패로 마무리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은행에서 개인 고객의 자산관리 팀을 이끌고 있는 저자는 놀랍게도 대다수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곳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고 설명한다.

돈이 풍족한 나머지 여기저기 투자를 하다가 실패한 경우, 세금 계획을 잘못 세워서 아깝게 날린 사례, 재산 소유권에 관한 복잡한 법적 관계를 적절히 관리하지 못한 사례, 혹은 자산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곳에 맡긴 것, 모두 실제로 있는 일이고 많은 사람들이 가족 재산이 그리 길게 유지되지 못하는 이유로 추정하는 부분들이다. 그러나 저자는 연구를 통해 이러한 요소가 재산 관리 실패에 영향을 준 경우는 불과 5 퍼센트에 그치며 나머지 95 퍼센트는 가족간의 의사소통 결여, 신뢰 부족, 다음 세대의 준비 부족, 가족 간의 미션과 비전 공유 실패에 있다고 설명한다. 재산 규모가 얼마가 됐든, 가족은 가족이다.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은 물론 서로 화내고, 질투하고, 서로를 두려워하는 감정이 켜켜이 쌓인 이 가족이라는 관계를 대기업의 조직구성에 대응하여 가장을 경영진으로, 나머지 가족들을 이해관계자로 구분할 수 있으며 ‘직원’으로 볼 수 있는

가족 구성원도 따로 분류할 수 있다. 저자는 이러한 조직적인 구성에 따라 체계적으로 관리되어야 할 재산이 예상치 못한 감정적 갈등이나 준비 부족으로 소멸되는 일을 막을 수 있는 다양한 전략을 이 책에서 소개한다. 재산 관리에 있어서 의사소통 문제를 해결하고 신뢰를 잃지 않는 법, 전략적이고 전술적인 재산관리 계획을 세우는 법, 가족 모두가 추구하는 미션과 비전을 확립하는 방법 등 경제적인 돈 관리의 핵심 요소보다 훨씬 중요한 부분들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이를 더 탄탄하게 확립시키는 방법을 소개한 영리한 지침서다.

<목차>

1부. 재산의 의미

- 1장. 재산 관리의 문제
- 2장. 재산이 돈만 의미하는 건 아니다
- 3장. 재산 관리의 여파

2부. 재산 관리 과정

- 4장. 전술과 전략의 통합이 중요한 이유
 - 5장. 재산을 가족처럼 관리해야 할까?
 - 6장. 재산이 완성된 사연: 중요한 요소
 - 7장. 비전과 미션: 과거, 현재, 미래
 - 8장. 가족의 체계: 역할과 책임, 의사결정, 갈등 해소
 - 9장. 미래의 리더십
- (이하 생략, 총 13장으로 구성)

<저자 소개>

마이클 A. 콜(Michael A. Cole)은 U.S 은행(U.S. Bank)에서 개인 자산관리팀을 조직하여 대표를 맡고 있다. 순자산 규모가 높은 개인 고객들을 대상으로 재무관리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